

“해상봉쇄 효과...이란 송유관 사흘후면 내부 폭발”

트럼프 “협상팀 안 보내...협상 원하면 전화하라”

‘협상에 매달리지 않는다’ 메시지로 이란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을 “전화로 진행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람들(미국 협상 대표단)을 18시간이나 여행하게 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 측에 전화를 걸어 ‘우리는 더는 이것(협상단을 파키스탄에 보내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들은 계속 관여하는 것을 유지할 것”이라며 “파키스탄이 중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중전)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종료때까지 휴전을 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란과의 대면

협상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당초 미국은 협상 대표단을 25일 협상지인 파키스탄으로 파견하려 했지만 이란 측이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파견을 보류했다.

결국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협상’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협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이란을 압박한 메시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선 “우리는 훌륭한 성과를 냈으며,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그들(이란)이 똑똑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쨌거나 이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이 호르무즈 해협 및 대평양 등 다른 해역에서 미 해군에 지시한 이란 연계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이라며 “그들은 더이상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막대한 석유가 쏟아지는 송유관이 있을 때 어떤 이유로든 컨테이너나 선박에 계속 실을 수 없어 그리인이 막히게 되면 그 관은 기계적 요인으로 지하에서 내부 폭발하게 된다. 실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며 봉쇄로 인해 그들에게는 선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폭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흘 밖에 안 남았다”고 말한다”며 “일단 폭발하면 복구는 불가능하다. 설령 복구한다고 해도 현 규모의 50% 정도밖에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봉쇄로 인해

이란 송유관이 막히면 관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 석유 산업 재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이를 두고 미 CNN 방송은 석유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 이란의 석유 시설 상당수가 이미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폭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짚으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 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 “우리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부으며 오랫동안 봉사해왔는데 우리가 약간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곁에 없었다”며 “따라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불만을 표출했다.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에서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콜 토마스 앨런(가운데 건물)과 관련된 주택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우린 미친세상에 살고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주최 갈라 만찬이 열린 호텔 안에서 전날 발생한 총격 사건을 떠올리며 “우리는 미친 세상(crazy world)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밤 만찬장인 워싱턴 DC의 호텔에서 자신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을 노리고 총격범이 난입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상자가 나올 수 있었는데 얼마나 걱정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삶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을 포함해 이번까지 3차례 암살 시도에 직면했다. 첫 암살 시도였던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유세에

선 암살범이 쏜 총알에 귀를 다칠 정도로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이처럼 여러 차례 생사의 경계에 섰던 인물이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 역시 반대자들에 의한 ‘정치 테러’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행사장 밖으로 나가면서 “상황을 보고 싶어서 ‘잠깐만 내가 보게 해줘. 잠깐만’이라고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경호원들은) ‘바닥에 엎드리시오’라고 했고, 그래서 나는 엎드렸다”며 “우리는 잠시 대기실로 갔고, 나는 가능하다면 행사를 계속하도록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란 “호르무즈 개방·중전 먼저, 핵 추후 논의”

‘양측 이견 첨예한 핵 협상 미루자’ 제안

트럼프, 27일 백악관 회의서 문제 논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중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약시오스가 전했다.

양측의 이견이 첨예한 핵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핵 개방과 봉쇄 해제 등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는 취지다.

이란은 파키스탄 측 중재자들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미 행정부 관계자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이 약시오스에 전했다.

약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측이 해상 통제를 해제하고 장기 휴전 또는 영구 중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다음 단계로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핵 분야 협상을 둘러싼 이란 내부의 반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약시오스는 분석했다.

이란 지도부는 최근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강경파는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과 이집트·튀르키예·카타르 등 중재국들에 “미국의 농축 우라늄 관련 요구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란 지도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제안을 실제로 검토할 의

향이 있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약시오스는 짚었다.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는 향후 핵 협상 과정에서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최대 무기인데, 이를 먼저 해제할 경우 이란의 양보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에 최소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이미 농축된 우라늄은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내건 핵 실험 목표, 만약 이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쟁 명분 자체가 무력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최고 참모들과 상황실 회의의 틀에 예정이라고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현재 협상 교착 상태를 논의하고 전쟁의 다음 단계 선택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 가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중남성 고양이 1천500마리 학대 의혹...“살해영상도 제작”

중국에서 한 남성이 수년간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중국신문주간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허난성 핑딩산시에서 거주하는 마모씨는 약 4년간 1천50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고양이의 신체를 잔혹하게 훼손하는 수법으로 학대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관련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고품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유기동물 구조 활동가들의 추적으로 드러났다. 활동가들은 학대 흔적이 있는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자 자체 조사를 벌여 마씨를 특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마씨가 입양을 가짐에 고양이를 확보한 뒤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22년부터 펫샵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고양이 1천500마리를 입양했으나 대부

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활동가들은 특히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씨는 고양이 학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것으로도 의심된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약 1천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받고 특정 방식의 학대 영상을 제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